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임성우¹, 정현식², 송민선^{3*}

¹건양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²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³건양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Sung Woo Lim¹, Hun Sik Jung², Min Sun Song^{3*}

¹Major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Konyang University

³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 목적은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편의 표집한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는 성별, 진로결정,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성별($t=3.52, p<.001$), 전공($F=10.85, p<.001$), 진로결정($t=4.9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심리자본($r=.45, p<.001$)과 교수지지($r=.40, p<.001$)는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 진로결정유무, 긍정심리자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32.5%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전공별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상담지도를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or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on 180 students from August 30 to October 30, 2020.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according to gender, majors, and economic leve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t=3.52, p<.001$), major ($F=10.85, p<.001$), and career decision ($t=4.98, p<.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majors, and career decision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45, p<.001$) and professor support ($r=.40, p<.0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majors, career decision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32.5%. Therefore, effective career and counseling guidance should be planned to increa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cording to the major.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exploration of various career options to enable students to select suitable careers or jobs and to set goals, and provide an environment with positive motivation.

Keywords : Universities, Student, Capital, Support, Career,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Min Sun Song(Konyang Univ.)

email: mssong@konyang.ac.kr

Received January 6, 2021

Revised January 21, 2021

Accepted April 2, 2021

Published April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포함한 신종감염병으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경제가 위축되어 취업에 대한 경색이 심화되는 불안한 시기에 있다[1]. 그러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이 80%를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능력 등을 반영한 직업을 갖고자 성취 지향 목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삶 지향 목표를 동시에 탐색하고[3], 끊임없이 진로 및 직업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하는데[4],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성공적인 취업과 더불어 직무만족도로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5]. 최근 기업과 대학에서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긍정심리를 자본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인재개발 전략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의 전통적인 학업성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긍정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학습성과[6], 진로준비행동[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 상태로 여기에 4가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 둘째,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목표의 경로를 재설정 할 수 있게 하는 희망, 셋째, 문제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성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난관이나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인 자아탄력성,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으로 작용하는 낙관성이다[8].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장벽이나 진로성숙도 등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낙관성이 진로장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복원력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보다 진로성숙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고도 하였다[10]. 또한, 개인적 성격특성요인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침도 보고하였다[11].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학에서는 전공교수와 지도교수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12]. 교수지지는 교수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교수가 학생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학생의 지각을 의미한다[13]. 교수지지는 진로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해결하고 학업성취나 진로설계와 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교수자의 진로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14].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 대해 조언해 줄 교수에게 의지하며, 교수자가 대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된다[15]. 또한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진로에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4].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개인특성, 생애목표 및 그것이 영향요인이라는 연구[16],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 전문대학생의 교수지지와 진로정체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4] 등이 있었다. 학과단위로 진행된 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7], 체육계열 여대생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8], 항공관광전공 대학생 중심의 교수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연구[19]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과 교수지지에 대해 단일 전공들의 연구였으며 대면이 가능했던 시기의 연구들이었다. 진로준비행동에 개인적 특성,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공별 진로준비행동에 여러 측면의 개인적인 특성과 교수자의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비대면 상황에서 확인된 연구는 없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학마다 취업률의 제고를 위해 학생들에게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교수자들의 진로와 취업상담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비대면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개인과 교수 측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진로와 취업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진로준비행동을 조사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C도 일개대학 재학생으로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표본수는 본 연구의 필요 연구 대상자 수는 G * Power 3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20], 유의수준(α)0.05, 검정력(1- β) 95%, 효과 크기(f^2) 0.15 (medium), 독립변수 9개로 두어 산출했을 때 적정 표본 크기 166명을 근거로 하였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80개를 수집하였으며, 미흡한 설문지 없이 180개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표본수에 충분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년, 전공(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진로결정유무, 평균평점, 경제수준(잘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측정을 위하여 Luthans 등[8] 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Jeong [9]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이 도구는

응답자의 기질이 아닌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24문항 6점 척도로 자기효능감 6문항, 희망 6문항, 복원력 6문항, 낙관주의 6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Luthans 등[8]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긍정심리자본 .89, Jeong [9]의 연구에서는 전체 .91, 자기효능감 .80, 희망 .84, 자아탄력성 .75, 낙관성 .69 등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자기효능감 .86, 희망 .86, 자아탄력성 .73, 낙관성 .65이었다.

2.3.3 교수지지

교수지지는 Hektner [21]의 연구를 기초로 Kim [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5점 척도로 교수자가 수업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학업적 지원정도를 측정하는 학습지지 5문항, 교수자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지지 5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로부터 받는 지지수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3, 학습지지 .85, 정서지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학습지지 .87, 정서지지 .84이었다.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 [22]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대학교에 진로지원센터의 개설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한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Lim과 Lee [23]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총 18문항 5점 척도로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실천노력활동 7문항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과 Lee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정보수집활동 .82, 도구구비활동 .85, 실천노력활동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정보수집활동 .77, 도구구비활동 .79, 실천노력활동 .87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학교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부착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대면을 줄이기 위해 학생 휴게공간내 설문지 수거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소요시간은 20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KYU-2020-089-0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중단이나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하고 이후 문서파쇄기에 의해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Program 24.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0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평균 20.42±1.78세(범위 18~27세)였다. 성별은 남자 84명(46.7%), 여자 96명(53.3%)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64명(35.6%), 2학년 41명(22.8%), 3학년 51명(28.3%), 4학년 24명

(13.3%)이었다. 전공은 인문계열 92명(51.1%), 이공계열 52명(28.9%), 예체능계열 36명(20.0%)이었다. 진로결정여부는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138명(76.7%),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42명(23.3%)이었으며, 평균 평점은 2.5점이상~3.0점 미만은 9명(5.0%), 3.0점이상~3.5점 미만은 60명(33.3%), 3.5점 이상~4.0점 미만은 87명(48.4%), 4.0점 이상은 24명(13.3%)이었다. 경제수준은 잘사는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는 22명(12.2%),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는 128명(71.1%),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는 30명(16.7%)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ean±SD or n(%) |
|---------------------|-----------------------------|-----------------|
| Age | | 20.42±1.78 |
| Gender | Male | 84(46.7) |
| | Female | 96(53.3) |
| Grade | Freshman | 64(35.6) |
| | Sophomore | 41(22.8) |
| | Junior | 51(28.3) |
| | Senior | 24(13.3) |
| Major | Humanities | 92(51.1) |
| | Science and engineering | 52(28.9) |
| | Arts and physical education | 36(20.0) |
| Career decision | Yes | 138(76.7) |
| | No | 42(23.3) |
| Grade point average | ≥2.5<(3.0 | 9(5.0) |
| | ≥3.0<(3.5 | 60(33.3) |
| | ≥3.5<(4.0 | 87(48.4) |
| | ~≥4.0 | 24(13.3) |
| | Good | 22(12.2) |
| Economic level | Usually | 128(71.1) |
| | Poor | 30(16.7) |

3.2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6점 척도로 전체 평균은 3.84±0.55점이며, 하위영역의 자기효능감은 3.88±0.64점, 복원력 3.85±0.60점, 낙관주의 3.83±0.62점, 희망 3.80±0.66점 순이었다. 교수지지는 5점 척도로 전체 평균은 3.86±0.68점으로 학습지지 3.86±0.72점, 정서지지 3.86±0.69점이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5점 척도로 전체 평균은 3.14±0.75점, 하위영역의 정보수집활동 3.48±0.73점, 도구구비활동 3.10±0.82점, 실천노력활동 2.88±0.91점 순이었다.

Table 2. Degre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N=180)

| Variables | Categories | Mean±SD |
|--------------------------------|-----------------------------|-----------|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elf-efficacy | 3.88±0.64 |
| | Hope | 3.80±0.66 |
| | Resilience | 3.85±0.60 |
| | Optimism | 3.83±0.62 |
| | Total | 3.84±0.55 |
| Professor support | Learning support | 3.86±0.72 |
| | Emotional support | 3.86±0.69 |
| | Total | 3.86±0.68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exploration activity | 3.48±0.73 |
| | Tool preparation activity | 3.10±0.82 |
| | Goal attainment activity | 2.88±0.91 |
| | Total | 3.14±0.7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2.48, p=.013$),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진로결정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3.05, p=.004$),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8.44, p<.001$), 사후검정결과 잘사는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고, 보통인 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대상자의 교수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2.10, p=.038$), 남자가 여자보다 교수지지가 높았다. 진로결정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3.17, p=.003$),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교수지지가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55, p=.005$), 사후검정결과 잘사는 편과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편이 어려운 편보다 교수지지가 높았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3.52, p<.001$), 남자가 여자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전공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0.85, p<.001$), 사후검정결과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또한, 진로결정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4.98, p<.001$),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 Professor support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 | | Mean ±SD | t or F (p) | Mean ±SD | t or F (p) | Mean ±SD | t or F (p) Scheffé |
| Gender | Male | 3.95±0.61 | 2.48 (.013) | 3.98±0.80 | 2.10 (.038) | 3.35±0.82 | 3.52 (<.001) |
| | Female | 3.75±0.47 | | 3.76±0.55 | | 2.96±0.63 | |
| Grade | Freshman | 3.82±0.52 | .48 (.695) | 3.84±0.64 | 1.20 (.310) | 3.15±0.69 | 1.00 (.397) |
| | Sophomore | 3.88±0.50 | | 4.02±0.69 | | 3.22±0.77 | |
| | Junior | 3.79±0.66 | | 3.82±0.79 | | 3.00±0.86 | |
| | Senior | 3.94±0.43 | | 3.72±0.50 | | 3.28±0.62 | |
| Major | Humanities ^a | 3.87±0.51 | .36 (.695) | 3.94±0.70 | 1.28 (.281) | 3.38±0.75 | 10.85 (<.001) a>b,c |
| | Science and engineering ^b | 3.82±0.58 | | 3.81±0.64 | | 2.91±0.67 | |
| | Arts and physical education ^c | 3.79±0.58 | | 3.74±0.68 | | 2.85±0.69 | |
| Career decision | Yes | 3.92±0.48 | 3.05 (.004) | 3.96±0.62 | 3.17 (.003) | 3.29±0.71 | 4.98 (<.001) |
| | No | 3.58±0.67 | | 3.54±0.79 | | 2.67±0.69 | |
| Grade point average | 2.5~(3.0) | 3.61±0.87 | 1.33 (.267) | 3.50±1.13 | 1.59 (.195) | 2.62±0.83 | 1.76 (.157) |
| | 3.0~(3.5) | 3.78±0.48 | | 3.80±0.59 | | 3.13±0.65 | |
| | 3.5~(4.0) | 3.88±0.56 | | 3.90±0.70 | | 3.21±0.79 | |
| | ~≥4.0 | 3.96±0.47 | | 4.03±0.60 | | 3.10±0.78 | |
| Economic level | Good ^a | 4.19±0.48 | 8.44 (<.001) a>b,c b>c | 4.15±0.55 | 5.55 (.005) a,b>c | 3.29±0.83 | 2.10 (.125) |
| | Usually ^b | 3.84±0.49 | | 3.88±0.62 | | 3.17±0.73 | |
| | Poor ^c | 3.58±0.67 | | 3.55±0.89 | | 2.90±0.77 | |

3.4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63, p<.001$), 진로준비행동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5, p<.001$). 또한, 교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0,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club activities,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for nursing students (N=180)

| Variable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Professor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
| | r (p) | | |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1 | | |
| Professor support | .63 (.001) | 1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45 (.001) | .40 (.001) | 1 |

3.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변인 중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전공, 진로결정 유무,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58~.87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5~1.71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05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하였고($F=15.37, p<.001$),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beta=-.22, p=.001$), 인문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beta=-.20, p=.005$), 진로결정 유무($\beta=-.17, p=.010$), 긍정심리자본($\beta=.31, p<.001$)이었다. 즉, 인문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이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을 한 경우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32.5%였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80)

| Variables | B | Standard error | β | t | p |
|---|-------|----------------|---------|-------|-------|
| (Constant) | 24.17 | 6.69 | | 3.62 | <.001 |
| Gender_female(ref male) | -2.28 | 1.78 | -.08 | -1.28 | .202 |
| Major_science and engineering (ref humanities) | -6.53 | 1.97 | -.22 | -3.32 | .001 |
| Major_arts and physical education (ref humanities) | -6.59 | 2.29 | -.20 | -2.88 | .005 |
| Career decision_Yes(ref no) | 5.46 | 2.10 | .17 | 2.60 | .010 |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31 | .08 | .31 | 3.79 | <.001 |
| Professor support | .24 | .16 | .12 | 1.49 | .139 |
| F=15.37 p<.001 R ² =.348 Adj. R ² =.325 | | | | |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진로와 취업 지도에 있어 개인측면과 교수측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공은 인문계열이 많고,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 순이었으며,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76.7%로 많았다. Suh [24]의 연구를 보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진학의 진로결정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20.2%로 본 연구결과에서 처럼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전공을 정하여 입학하는 상황이나 20.2%가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진로탐색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Suh [24]의 연구에처럼 구체적인 진로탐색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에서 진로준비행동에서 실천노력활동 점수가 낮은 것을 볼 때 진로준비를 위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실천정도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남자가 여자보다, 진로결정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보통인 편이나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보다, 보통

인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보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이는 대상전공은 다르나 Lee와 Lee [2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에서, 경제수준도 상위권이 하위권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방안 마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지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진로결정을 한 경우에서,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과 보통인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어려운 편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보다 교수지지가 높았다. 학년에 따라 교수지지의 차이를 보인 Yun [1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특히 진로결정을 한 경우에는 학습이나 정서지지 측면에서 교수로부터 많은 정보 등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보다, 진로결정을 한 경우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이는 학년에 따라 차이는 없으나 학업성취도가 상위집단과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2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단순히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문계열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 진로를 찾고, 전공 내외 분야에 대한 탐색, 학교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진로를 발견해나가면서 선배나 교수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7]. 또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이고, 진로탐색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하게 [22]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준비행동, 교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범대생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28], 간호대학생에서는 부모지원이 높은 경우, 가족관계 질이 높은 경우, 교수와의 관계가 높은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높았으며, 교수관계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25]. 가족구성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교수나 교수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인정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25]

Yun [14]의 연구에서는 교수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im과 Yim [29]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들과 전공은 다르나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진로결정유무, 긍정심리자본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6]의 연구에서처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한다는 것처럼 전공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공별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학과차원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전공만족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Kim과 Yim [29]은 진로준비행동에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여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일부 유사하였다. Park [28]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한 영향요인이며, 사회적지지 중 교수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측면보다는 개인측면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자료수집 시점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1학기에 진행하고, 코로나19의 2단계로 일부 대면수업시에 시행되어 교수지지가 전반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다른 학년보다 더욱 교수자와 진로탐색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Yun [14]는 정서적지지,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자신감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2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일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Yun [14]는 대학생에 맞는 진로지도와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한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공과 진로결정유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전공별 혹은 학과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진로탐색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과 연계 중심의 세밀하고 다변화된 지원이 요구되며[27], 학교마다 진로와 관련된 교양교과목의 홍보, 진로상담 등을 학생상담부서 혹은 취업관련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취업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전공에서 면허 등이 제공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공을 제외하는 등 진로가 명확한 대학생을 제외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과 코로나19라는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뉴노멀시대에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개인측면을 더 강조하고, 전공별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상담지도를 계획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전략을 도입하여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준비행동의 개인 및 교수 측면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긍정심리자본, 교수지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에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진로결정유무, 긍정심리자본으로 나타나 개인측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전공별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진로 및 상담에 대한 비대면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O. Shin, "Nursing students' feeling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2, pp.75-81, Dec.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2.075>
- [2] K. M. Park, K. N. Lee,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preparation for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 Vol. 34, No. 2, pp.103-127, Jun. 2009.
- [3] J. H. Shin, E. J. Seo, Y. K.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fe Goal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255-276, Jun. 2011.
- [4] B. H. So, J. H. Kim, L. J. Jun, J. Y. Kwon, J. H. Song, "The effect of new employe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job satisfaction: Mediated effect of work value and moderated effect of enterprise educational training",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 19, No. 4, pp.155-185, Dec. 2017.
DOI: <https://doi.org/10.46260/KSLP.19.4.7>
- [5] Y. S. Lee, H. I. Ki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33, No. 4, pp.151-166, Dec. 2019.
DOI: <https://doi.org/10.18398/kilgas.2019.33.4.151>
- [6] B. C. Luthans, K. W. Luthans, S. M. Jensen, "The impact of business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 87, No. 5, pp.253-259, Jun. 2012.
DOI: <https://doi.org/10.1080/08832323.2011.609844>
- [7] J. S.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6, No. 4, pp.31-59, Nov. 2013.
- [8]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pp.541-572, Sep. 2007.
DOI: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7.00083.x>
- [9] E. Y. Jeong,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girl",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1-53, 2013.
- [10] I. S. Park, S. S. Ahn,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maturity - Focusing on the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9, No. 2, pp.27-53, Jun. 2019.
DOI: <https://doi.org/10.35273/jec.2019.9.2.002>
- [11] N. A. Noh, I. H. Seo, J. Y. Yeon, J. I. Choi,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5, pp.697-707, May. 2018.
- [12] Y. K. Kim, W. K. Lee, "The effect of professor suppor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on

- career identi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 29, No. 4, pp.47-65, Dec. 2017.
DOI: <https://doi.org/10.26840/JKI.29.4.47>
- [13] E. Trickett, R. Moos, “Social environment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5, No. 1, pp. 93-102, 1973.
DOI: <https://doi.org/10.1037/h0034823>
- [14] D. H. Yun, “The influence of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Health & Welfare*, Vol. 20, No. 2, pp. 215-231, Jun. 2018.
DOI: <https://doi.org/10.23948/kshw.2018.06.20.2.215>
- [15] M.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hD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Korea, pp.1-109, 2019.
- [16] J. K. Lee, J. S. Jun,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fe goals, and gri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 10, No. 1, pp.269-284, Mar. 2020.
DOI: <https://doi.org/10.34226/gcl.2020.10.1.269>
- [17]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4, pp.21-36, July. 2017.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7.17.14.21>
- [18] M. A. Hong, J. A. You,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 34, No. 1, pp.135-147, Mar. 2020.
DOI: <https://doi.org/10.16915/ikapesgw.2020.3.34.1.135>
- [19] Y. M. Jung,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2, No. 4, pp.831-853, Jul. 2018.
DOI: <https://doi.org/10.18604/tmro.2018.22.4.36>
- [20]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1] J. M. Hektner, “*Exploring optimal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Psychology, 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 pp.1-404, 1996.
- [22]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311-333, Jun. 1997.
- [23] E. M. Lim, M. S. Lee, “Correlation analysi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tudent Counseling Research*, Vol. 1, No. 0, pp.101-113, Dec. 2003.
- [24] K. Y. Suh,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explor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9, No. 4, pp.95-114, Dec. 2019.
DOI: <https://doi.org/10.35273/jec.2019.9.4.005>
- [25] S. Y. Lee, K. H. Lee,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5, pp.269-279, May.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5.269>
- [26] H. S. Kim,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3, pp.25-41, Sep. 2019.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9.09.32.3.25>
- [27] H. B. Jang, J. H. Park, “A qualitative stud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tudying humanitie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20, No. 3, pp.27-46, Sep. 2018.
DOI: <https://doi.org/10.19034/KAYW.2018.20.3.02>
- [28] S. Y. Park, “An analysis of a mediation effect that social support has 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students in college of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 pp.169-193, Jan. 2017.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7.17.2.169>
- [29] S. H. Kim, H. B. Y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368-375, Nov.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68>

임 성 우(Sung Woo L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일자리사업, 진로교육

정 헌 식(Hun Sik 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건양대학교 강의전문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조직변화,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송 민 선(Min Sun Song)

[중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